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the Preschoolers' Aggressive and Social Withdrawal Behavior

구미1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 미 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옥 경희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천희영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umi 1 College

Asso. Prof. : Kim, Mee Hae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Asso. Prof. : Ok, Kyung Hee

Dep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Prof. : Chun, Hui Young

(목 차)

I. 서 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Abstract>

Maternal beliefs about preschoolers' display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se behaviors can be predicted from beliefs were examined. And the extent to which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problematic behaviors can be predicted from beliefs. 202 mothers of 5-year-old(114 boys; 88 girls) were presented with descriptions of hypothetical incidents of peer-directe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Maternal belief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kinds of problematic behaviors. Thus most mothers attributed preschoolers' aggression to situational factors, social

Corresponding Author: Kim, Mee Ha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umi 1 College, #407 Bukok-dong, Kumi, Kyungbuk 730-711,
Korea Tel: 82-54-440-1292 Fax: 82-54-440-1299 E-mail: mееhae@kumi.ac.kr

withdrawal to disposition. Mothers felt embarrassed about aggression and concerned about social withdrawal. The power assertive strategies were more used for dealing with aggression than social withdrawal. The choice of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se behaviors and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were related to maternal beliefs. Also preschoolers' social problematic behaviors were effected from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어머니 신념(maternal beliefs), 귀인(attribution),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

I. 서 론

최초로 가족이외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취학전기의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다른 아동들과 놀면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또래를 향한 공격행동이나 사회적 위축행동은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유아들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여러 가지 발달측면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신혜영, 1994; 이양희, 김윤영, 2002),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분야는 부모-자녀 관계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부모와 자녀간의 행동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사회인지 연구, 정보처리모델의 영향으로 부모의 인지와 신념이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반영될 수 있고, 중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Goodnow, 1988; Hasting & Rubin, 1999; Miller, 1988; Mills & Rubin, 1990; 1992).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주변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모를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부모의 신념은 아동발달 전반에 대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아동의 인지발달 및 학습에 대한 부모 신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부모 신념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에 관한 부모 신념(예: Sigel & McGillicuddy - DeLisi, 1982) 및 아동의 특정 능력이 언제 발달하는지에 관한 신념 연구(예: Bird & Berman, 1985), 부모 신념의 근원에 관한 연구(예: Miller, 1986), 신념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예: McGillicuddy - DeLisi, 1985)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Miller, 1988; Goodnow, 1988).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부모신념 연구에 부모의 귀인이나 감정요인이 고려되어 아동발달에 관한 귀인과 부모의 정서적 과정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Goodnow, 1988; Hasting & Rubin, 1999; Miller, 1988; Mills & Rubin, 1990; 구순주와 최보가, 1996), 전통적인 부모신념 연구에서 다루어온 일반적인 자녀양육 목적이나 교육관(Goodnow, 1988; Harwood, Schoelmerich, Schulze & Gonzalez, 1999; Hasting & Rubin, 1999)과 아동의 사회화 전략(Hasting & Rubin, 1999; Harwood 등, 1999; Miller, 1988; Mills & Rubin, 1990)도 부모신념에 포함되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양육목적,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귀인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이 세 가지 하위요인의 영향력 하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사회화 전략을 양육신념의 하위요인으로 하였다.

부모-자녀간 상호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관심

을 갖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귀인은 부모인지 및 사회인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행동을 설명, 평가, 예언하려고 할 때 부모가 하는 판단이다. 즉 자녀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그 행동의 원인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설명하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귀인 방식은 부모 행동 및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순주 등, 1996).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image)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은 타고난 것이고, 안정적이며, 성향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지만, 부정적인 행동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 귀인한다(Goodnow, 1988).

부모의 귀인과 아동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부모들은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귀인하였고(Hasting & Rubin, 1999; Mills & Rubin, 1990; Rubin & Mills, 1990), 이전에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성향적이고, 의도적이며,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을 덜 적대적으로 귀인하였을 때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높았다(Pettit 등, 1988; 구순주와 최보가, 1996). 한편 취학전기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행동의 원인을 전이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귀인하였는데, 비공격적인 아동의 부모에 비해서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성향적이고 의도적이며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였다(Rubin & Mills, 1990). 또한 공격성은 남성적인 특성으로 남아에게 더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 남아의 공격성을 더 안정적, 성향적, 의도적 원인으로 귀인하고, 수줍음이나 격정과 같은 문제는 더 여성적인 것으로 보았다(Hasting 등, 1999; Mills 등, 1990; 구순주와 최보가, 1996).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보다 나이든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 의도적이고 성향적인 것으로 보았다(Dix 등, 1986; Mills 등, 1992 제인용).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크게 유발시키는 행동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행동은 또래를 향한 공격적 행동과 위축행동이다. 특히 공격성은 다른 어떤 유형의 사회적 행동보다 부모로부터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고(Hasting 등, 1990), 남아의 공격적 행동보다 여아의 공격적 행동에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다(Mills 등, 1992). 한편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어머니들은 더 큰 실망, 당황과 죄의식을 보였으나, 여아의 위축행동에 대해서는 덜 당황해 하였다(Hasting 등, 1999; Mills 등, 1990; 구순주와 최보가, 1996). 또한 아동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은 귀인과 관련되는데, 자녀의 문제행동이 성향에 의한 것이거나 통제 가능하다고 귀인할 때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Dix, Rubble & Zambarano, 1990).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화 전략은 부모의 귀인과 정서, 아동의 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성향적, 의도적인 요인으로 귀인하고(Dishion, 1990; Mills 등, 1990), 그 행동에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수록 (Grusec 등, 1982), 그리고 다른 어떤 행동보다 공격적 행동에 대해(Hasting 등, 1999; Rubin 등, 1990) 더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목적이나 교육관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상을 정의하고 인지를 조직화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지와 박성연, 2002). 양육목적에서 차이는 양육전략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아동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통제하는데 관심이 있는 부모는 높은 세력행사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는 부모의 내적 귀인, 분노의 감정과 더불어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Hasting & Grusec, 1998; Hasting & Rubin, 1999). 또한 자녀가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화 과업을 내면화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더 토론에 기초한 추론을 사용하는 반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는 부모는 가장 지지적이고 따뜻하며 타협에 개방적이었다(Hasting & Grusec, 1998). 그런데 관계중심의 양육목적은 보호적인 어머니나 영아기 때 사회적으로 위축된 자녀의 어머니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Hasting &

Rubin,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신념은 그 기본 요소들간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양한 인지적 요소의 구성체로서, 부모가 지닌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 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김은지와 박성연, 2002)으로 볼 수 있다. 예로서 Miller(1988)는 인지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인지발달과 부모의 신념간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부모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아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사용하거나(Hastings & Rubin, 1999)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구순주와 최보가, 1996)는 발견되었으나, 실제 문제행동과 그에 대한 양육신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부모들이 자녀에 관해 믿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간에는 적당한 정도의 관계가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들이 부족하다고 한 Miller(1988)의 지적처럼,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지 못하였다. 다만 신념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실제 모-자 상호작용에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Harwood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9)에 의하면,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더 칭찬하고 제안을 많이 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보다 간접적으로 구성하고자 한 반면, 사회적인 것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자녀의 행동을 더 직접적으로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실제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양육신념 및 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내용의 신념 중 자녀 교육관(전인육과 이경옥, 1999; 안지영과 박성연, 2002; 김지신과 박성연, 1996), 일반적인 자녀발달에 관한 신념(유수옥

과 임영식, 2001)이나 양육목표(박주희, 2000) 등을 다루거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신념을 연구한 예(김은지와 박성연, 2002)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의 신념 중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로는 구순주와 최보가(1996)의 연구가 있었다. 그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공격행동 및 위축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귀인 그리고 사회화 전략이 어머니의 신념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아동의 공격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거나 연령요인으로서의 귀인을 하거나 높은 세력행사 전략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축 행동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상태로 귀인하는 것과 높은 세력행사전략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신념체계를 일부 요인에 초점을 두어 단편적으로 다루었으며,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이외의 집단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유아기의 구체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그 행동에 대해 느끼는 감정,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머니가 가지는 일반적인 양육목적이라는 신념의 하위요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급속히 서구화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에서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상태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사회적 질서나 공중도덕의 사회화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한국갤럽 조사 연구소, 1980; 안지영과 박성연, 2002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부모교육의 방향 즉, 신념-행동 패러다임(McGillicuddy - DeLisi, 1985; 전인육과 이경옥, 1999 재인용)을 전제로 한 부모의 양

육신념에의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행동으로 유아의 공격행동과 사회적 위축행동과 어머니의 신념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구미시에 소재한 4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202명(남아 114명, 여아 88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이같이 선정한 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적응된 시기이고, 보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가정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6세이었고, 어머니는 평균 33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53.5%, 전문대 졸업 9.5%, 대졸이 34%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53.5%, 기술직이 14.4%, 자영업이 10.4%이었다. 어머니는 중졸 73.28%, 고졸 24.7%이었으며, 70%가 전업주부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21.3%, 15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인 가정이 56.4%, 300만원 이상인 가정이 22.3%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공격 및 위축행동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다루는 공격 및 위축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한미현과 유안진(1995)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1991년판 4-18세용 아동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중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취학전 유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행동별로 5문항씩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공격행동 .75, 위축행동 .7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신념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자녀 행동에 대한 귀인, 정서반응, 사회적 전략 및 일반적인 양육 목적 등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전자의 3가지 하위요인의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관심을 기울인 선행연구들(구순주·최보가, 1996; Harwood 등, 1999; Hasting & Rubin, 1999; Mills & Rubin, 1990, 1992)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참조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아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에 관한 가설적인 이야기를 각 2개씩 작성하였다. 공격행동에 관한 가설적 이야기에는 유아가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는 상황과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상황이 묘사되었고, 위축행동에 관한 이야기에는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유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유아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한번도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유아의 상황이 묘사되었다. 각 이야기를 어머니들에게 제시한 후 만약 자신의 자녀가 이야기 속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귀인), 그 행동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정서적 반응), 그리고 그 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전략(사회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일반적인 양육목적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은 Hasting 과 Rubin(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기

〈표 1〉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별 범주 및 내용과 신뢰도¹⁾

신념의 하위요인	범주 및 내용	신뢰도
귀인	성향, 습득된 습관, 나이, 일시적 상태, 외적·상황적 요인	.50~.74
정서적 반응	분노, 당황, 즐거움, 실망, 걱정, 만족, 놀라움, 혼란, 죄책감	.50~.82
사회화 전략	(1) 세력행사(power assertive) 전략 : 처벌하기, 명령하기	.81/.86
	(2)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ling) 전략 : 위협하기, 비난하기	.89/.85
	(3) 구조하기(structuring) 전략 : 추론, 모델링, 대안제시하기	.74/.75
	(4) 지지적(supportive) 전략 : 유아에게 정보 요청하기, 위로 하기, 유아의 활동에 합류하기	.78/.80
	(5) 외적 지향(externally directed) 전략 : 감독(monitoring), 교사에게 정보 요청하기	.66/.60
	(6) 무반응(no response) :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	.73/.71
양육목적	(1) 부모중심(parent-centered) : 유아의 행동을 즉시 그만두게 하기, 복종이나 순종을 얻어내기	.53
	(2) 사회화(socialization) : 유아에게 중요한 가치 기술, 과업 가르치기	.51
	(3)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al) : 유아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도록 도와주기, 대인기술을 가르치기	.57
	(4) 감정이입적/관계적(empathic relational) : 유아가 행복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부모-자녀 관계에 중점을 두기	.66

* 전략의 신뢰도에서 /앞쪽은 공격행동에 대한 전략, /뒤쪽은 위축행동에 대한 전략임

초로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평가대상인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별 내용과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천희영(1994)의 연구를 기초로 애정성과 통제성의 두 차원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였다. 각 차원별 5문항씩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애정차원의 양육행동은 .75, 통제차원의 양육행동은 .61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36명의 5세 유아(남아 24명, 여아 12명)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설문지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표 1〉에서 보듯이 .50~.89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문지 문항에 대한 검토 후 본 조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절차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 즉 각 문제 행동별 신념의 하위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즉 신념의 하위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념의 하위특성 중 귀인과 정서반응 특성의 해당요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최소 eigenvalue를 1.0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와 선행연구들(Hasting 등, 1999; Mills 등, 1990)을 기초로 하여 귀인은 성향, 연령 및 습득된

1) 2개의 가설적인 이야기당 신념의 하위요인별 평가문항은 1개이지만 사회적 전략의 평가 경우 범주별 2개 문항씩 사용되었다.

습관, 그리고 일시적·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반응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즐거움과 만족의 감정을 제외하고, 부정적 정서(분노, 실망, 당황, 죄책감), 혼란(어리둥절, 혼란), 걱정으로 구분하였다.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머니가 선택하는 사회화 전략은 일반적인 양육목적이나 귀인,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 (Dishion, 1990; Mills 등, 1990; Grusec 등, 1982; Hasting 등, 1999; Rubin 등, 1990)에 기초하여 문제 행동별로 사회화 전략에 대한 나머지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된 요인과 사회화 전략, 일반적인 양육목적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과 4 즉, 신념의 하위요인(요인분석에서 추출된 귀인 및 정서반응, 사회적 전략과 양육목적)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념의 하위요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공격·위축행동에 따른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

유아의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어머니의 신념체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제행동에 대한 귀인,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전략의 순으로 paired-t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가장 많이 귀인하였고, 위축행동에 대해

〈표 2〉 유아의 공격·위축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귀인	공격행동		위축행동		t
	M	SD	M	SD	
성 향	2.37	1.15	3.37	1.13	-11.72**
습득된 습관	2.17	1.02	1.43	.56	10.70**
나 이	2.62	1.02	2.21	1.00	5.98**
일시적 상태	2.23	.92	2.57	1.05	-4.69**
외적 요인	2.91	1.02	1.93	.84	11.82**

** p<.01

〈표 3〉 유아의 공격·위축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정서반응	공격행동		위축행동		t
	M	SD	M	SD	
분 노	2.91	1.21	2.67	1.27	2.81**
당 황	3.58	1.02	2.75	1.26	9.60**
즐거움	1.15	.40	1.10	.34	2.20*
실 망	2.20	1.14	2.33	1.22	-1.88
걱 정	3.14	1.27	3.76	1.11	-6.58**
만 족	1.17	.41	1.12	.36	2.22*
놀라움	2.62	1.35	2.33	1.27	4.70**
혼 란	2.65	1.33	2.27	1.27	5.59**
죄책감	2.35	1.27	2.03	1.11	4.50**

* p<.05, ** p<.01

<표 4> 유아의 공격·위축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

전략	공격행동		위축행동		t
	M	SD	M	SD	
세력행사전략	2.72	1.11	1.43	.59	18.97**
심리적통제전략	2.53	1.13	1.52	.66	15.31**
구성하기전략	3.31	1.04	3.37	.95	-1.19
지지적전략	3.53	1.08	3.09	1.11	8.57**
외적지향전략	1.59	.57	1.60	.59	-.55
무반응	1.23	.47	1.21	.48	.62

* p<.05, ** p<.01

서는 타고난 성향으로 귀인하였다. 차이검증을 결과에 의해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비교해보자면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이나 나이가 어린 탓으로, 그리고 습득된 습관으로 더 많이 귀인하였는데 비해, 위축행동에 대해서는 타고난 성향이나 일시적 상태로 더 많이 귀인하였다.

유아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차이검증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실망과 걱정의 반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서적 반응에서 자녀의 위축행동보다는 공격행동에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걱정하는 반응은 유아의 위축행동에 더 많이 나타났고, 실망하는 반응은 공격행동이나 위축행동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공격행동이나 위축행동에 분노, 당황, 걱정의 정서적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는데, 그 순서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당황하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고, 그 다음 걱정과 분노의 순으로 반응을 하였는데 비해, 위축행동을 할 때에는 걱정하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고, 그 다음 당황과 분노의 순으로 반응을 하였다.

자녀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머니들이 선택하는 전략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구성하기전략과 지지적 전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지

지적 전략은 위축행동보다 공격행동에 더 많이 사용되었고, 구성하기 전략은 공격·위축행동 모두에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었다. 즉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공격행동이나 위축행동을 보였을 때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을 보여주거나 다른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제시하는 구성하기 전략이나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거나 위로하는 지지적 전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력행사 전략과 심리적 통제 전략이었다. 자녀의 위축행동보다 공격행동에 처벌이나 명령과 같은 세력행사전략과 위협이나 비난과 같은 심리적 통제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2. 공격 및 위축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을 예측하는 신념체계

일반적인 양육목적, 각 문제행동에 대한 귀인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사회화 전략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각 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체계들이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머니가 선택하는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자녀의 공격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사회화 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을 단계적 중다

<표 5> 공격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체계, 양육목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양육목적			귀인			정서적 반응			사회적 전략					양육행동			
		부모 중심	사회화	상호 작용	관계적	성향	연령	일시 외부	부정	혼란	걱정	세력 행사	심리 통제	구성 하기	지지 적	외적 지향	무반응	애정	통제
양육 목적	부모중심	1.00																	
	사회화	.18**	1.00																
	상호작용	.12	.27	1.00															
	관계적	.28**	.33**	.35**	1.00														
귀인	성향	.04	.01	-.06	-.07	1.00													
	연령습관	.04	-.08	-.04	-.04	.43**	1.00												
	일시외부	.00	-.02	.01	-.09	.10	.09	1.00											
정서적 반응	부정정서	.07	.13	.00	-.06	.42**	.42**	.37**	1.00										
	혼란	.01	.10	-.04	-.09	.26**	.32**	.39**	.81**	1.00									
	걱정	.10	.17*	.02	-.01	.30**	.34**	.22**	.56**	.47**	1.00								
사회적 전략	세력행사	.13	.09	.00	-.01	.37**	.48**	.31**	.75**	.69**	.41**	1.00							
	심리통제	.17*	.11	.00	-.01	.46**	.50**	.33**	.76**	.69**	.44**	.86**	1.00						
	구성하기	-.02	.13	-.04	-.14	.27**	.38**	.34**	.52**	.52**	.43**	.52**	.53**	1.00					
	지지적	-.05	.10	-.06	-.06	.28**	.37**	.42**	.59**	.55**	.49**	.55**	.56**	.72**	1.00				
	외적지향	.09	.13	-.04	-.06	.26**	.34**	.25**	.59**	.51**	.35**	.49**	.53**	.38**	.44**	1.00			
	무반응	-.14	-.20**	-.08	-.07	.02	.18*	.14	.15*	.16*	-.02	.12	.17*	.03	.09	.24**	1.00		
양육 행동	애정	-.07	.16*	.07	-.01	-.06	-.11	-.02	.02	-.01	-.07	-.06	-.06	.11	.12	.00	.04	1.00	
	통제	.30**	.25	.19**	.13	.06	.03	-.01	.16*	-.10	-.04	.19**	.11	.04	.00	.08	-.16*	.32**	1.00

* p<.05, ** p<.01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세력행사전략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 귀인, 혼란의 정서적 반응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즉 어머니가 자녀의 공격행동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자녀의 공격행동을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 할수록 세력행사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세변인이 세력행사 전략 사용의 62%를 설명하고 있다. 심리적 통제 전략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 귀인, 혼란의 정서적 반응, 일반적인 양육목적 중 부모중심의 양육목적, 그리고 성향으로의 귀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67%이었다. 어머니가 자녀의 복종이나 순종을 강조하는 부모중심의 양육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공격행동에 부정적인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이 공격행동을 연령 및 습관이나 성향으로 귀인할수록 위협이나 비난과 같은 심리적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이나 대안제시와 같은 구성하기 전략에는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 귀인, 일시적 및 외적 요인으로의 귀인, 혼란과 걱정의 정서적 반응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약 38% 정도로 세력행사나 심리적 통제 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었다. 자녀의 공격행동에 모든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할수록, 그리고 그 행동을 비교적 변화 가능한 요인, 즉 연령 및 습관이나 일시적 요인으로 귀인할수록 구성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지지적 전략도 구성하기 전략과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부정적 정서, 일시적 및 외적 요인으

<표 6> 위축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체계, 양육목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양육목적				귀인			정서적 반응			사회적 전략						양육행동	
		부모 중심	사회화	상호 작용	관계적	성향	연령	일시 외부	부정 정서	혼란	걱정	세력 행사	심리 통제	구성 하기	지지적	외적 지향	무반응	애정	통제
양육 목적	부모중심	1.00																	
	사회화	.18**	1.00																
	상호작용	.12	.27	1.00															
	관계적	.28**	.33**	.35**	1.00														
귀인	성향	.10	-.01	.03	-.08	1.00													
	연령습관	.02	-.05	.08	.04	.14*	1.00												
	일시외부	.00	.01	.11	.04	-.19**	.37**	1.00											
정서적 반응	부정정서	.16**	.07	.07	-.03	.21**	.42**	.41**	1.00										
	혼란	.07	.05	.02	-.06	.12	.41**	.40**	.82**	1.00									
	걱정	.09	.08	.01	.04	.28**	-.02	.06	.15*	.20**	1.00								
사회적 전략	세력행사	.20**	.05	-.02	-.01	.15*	.48**	.31**	.56**	.54**	.02	1.00							
	심리통제	.19**	.10	-.08	-.02	.20**	.43**	.35**	.63**	.62**	.09	.81**	1.00						
	구성하기	-.01	.22**	.05	-.04	.22**	.36**	.29**	.49**	.47**	.17*	.25**	.30**	1.00					
	지지적	.01	.07	.01	-.05	.08	.36**	.54**	.54**	.52**	.11	.32**	.40**	.60**	1.00				
	외적지향	.12	.11	.10	-.08	.13	.42**	.43**	.56**	.54**	.11	.48**	.50**	.35**	.42**	1.00			
	무반응	.04	-.12	-.03	.00	.01	.28**	.20**	.23**	.23**	-.13	.33**	.30**	.04	.09	.35**	1.00		
양육 행동	애정	-.07	.16*	.07	-.01	-.06	-.06	.07	-.02	.06	.02	-.07	-.10	.18*	.10	.03	-.07	1.00	
	통제	.30**	.25	.19**	.13	.10	-.02	.02	.13	.07	.06	.19**	.13	.07	.01	.11	-.03	-.32**	
																		1.00	

* p<.05, ** p<.01

로의 귀인, 연령 및 습관으로의 귀인과 걱정의 정서적 반응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공격행동에 부정적인 정서나 걱정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그 행동을 일시적 요인이나 연령 및 습관 요인으로 귀인할수록 지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외적 지향 전략은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수록 많이 사용하였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무반응의 전략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화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공격행동을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한 습관으로 귀인할 경우에만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위축행동에 대한 세력행사 전략에는 부정적인 정서, 연령 및 습관 귀인, 부모 중심의 양육목적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

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위축행동에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자녀의 행동을 연령이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할 때, 그리고 순종을 복종이나 순종을 강조하는 부모중심의 양육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세력행사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세 변인의 설명력은 약 42%이었다.

비난이나 위협과 같은 심리적 통제 전략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약 41%의 설명력을 가진 가장 큰 예언변인이었고, 그 다음이 연령 및 습관 귀인, 혼란의 정서, 부모 중심의 양육목적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위축행동에 부정적인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느끼고, 그 행동을 연령이나 습관으로 귀인하며 부모 중심의 양육목적을 가질수록 심리적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구성하기 전략은 부정적인 정서, 연령 및 습관 귀인,

<표 7> 공격행동에 대한 사회화 전략에 영향미치는 신념체계

	예측변인	R	R ²	F	B	β
세력 행사 전략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귀인 혼란	.756 .777 .789	.572 .604 .622	253.43*** 144.00*** 103.26***	.910 .268 .212	.756 .198 .232
심리적 통제 전략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귀인 혼란 부모중심목적 성향귀인	.756 .785 .798 .807 .815	.571 .616 .636 .651 .665	249.20*** 149.11*** 107.80*** 85.81*** 72.52***	.935 .320 .228 .184 .134	.756 .232 .244 .123 .134
구성 하기 전략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귀인 일시적, 외적귀인 혼란 걱정	.528 .563 .594 .610 .614	.278 .317 .353 .372 .377	70.96*** 42.50*** 33.07*** 26.81*** 27.35***	.588 .277 .284 .204 .115	.528 .217 .204 .241 .140
지지적 전략	부정적 정서 일시적, 외적귀인 연령 및 습관귀인 걱정	.596 .641 .666 .678	.355 .411 .443 .459	103.49*** 65.35*** 49.29*** 39.24***	.693 .372 .257 .137	.596 .256 .196 .159
외적지향전략	부정적 정서	.586	.343	98.88***	.368	.568
무반응	사회화목적 연령 및 습관귀인	.194 .258	.038 .067	7.35** 6.66**	-.121 9.589E-02	-.194 .171

** p<.01, *** p<.001

<표 8> 위축행동에 대한 사회화 전략에 영향미치는 신념체계

	예측변인	R	R ²	F	B	β
세력 행사 전략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귀인 부모중심목적	.569 .398 .647	.323 .391 .418	89.38*** 61.42*** 44.33***	.324 .253 .114	.569 .300 .145
심리적 통제전략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귀인 혼란 부모중심목적	.637 .661 .678 .693	.406 .437 .460 .480	124.29*** 70.25*** 51.01*** 41.38***	.408 .191 .153 .129	.637 .197 .277 .147
구성하기 전략	부정적 정서 연령 및 습관귀인 사회화 목적 성향 귀인	.494 .533 .571 .586	.244 .284 .326 .343	60.12*** 36.65*** 29.61*** 23.88***	.460 .313 .276 .114	.494 .219 .206 .135
지지적 전략	부정적 정서 일시적, 외적귀인	.548 .649	.300 .421	80.24*** 67.66***	.591 .540	.548 .383
외적지향 전략	혼란 일시적, 외적귀인 연령 및 습관귀인 부정적 정서	.557 .599 .621 .633	.310 .358 .386 .401	84.82*** 52.49*** .39.16*** 31.14***	.280 .186 .168 .129	.557 .243 .188 .221
무반응	연령 및 습관귀인	.283	.080	16.32**	.201	.283

** p<.01, *** p<.001

일반적인 양육목적 중 사회화 목적, 성향 귀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위축행동에 분노와 같이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하고 그 행동을 연령 및 습관이나 태고난 성향으로 귀인하며 자녀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양육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구성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지지적 전략은 자녀의 위축행동에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할수록, 그리고 그 행동을 일시적 상태나 외부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귀인할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약 42%이었다. 한편 외적 지향 전략은 혼란의 정서적 반응, 일시적·외적 귀인, 연령 및 습관 귀인, 부정적 정서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위축행동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정서 반응을 할 때, 그리고 그 행동을 일시적인 상태나 외적인 요인으로 귀인하거나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할 때 교사에게 문의하는 외적 지향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자녀의 위축행동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이 행동을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할 경우에만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념의 하위요인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실제 양육행동을 애정과 통제 차원으로 나누어 각 양육행동에 양육신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 5>와 <표 6>의 상관관계 결과를 기초로 단단히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행동 중 애정 차원은 일반적인 양육목적 중 자녀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과만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통제차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만을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통제 차원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관계 없이 부모중심의 양육목적과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목적, 부모의 세력행사 전략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거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목적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세력행사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행동은 사회화 목적과만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른 신념체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양육신념이 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공격신념	부모중심목적	.319	.102	20.69***	.229	.319
	사회화 목적	.367	.134	14.13***	.140	.184
	세력행사전략	.396	.157	11.23***	7.514E-02	.152
위축신념	부모중심복적	.304	.092	18.99***	.224	.304
	사회화 목적	.362	.131	14.03***	.156	.201
	세력행사 전략	.388	.150	10.92***	.138	.142

** p<.01, *** p<.001

<표 10>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R ²	F	B	β
공격행동	애정적 양육행동	.193	.037	7.42**	-1.024	-.193
	무반응	.263	.069	7.07**	-1.069	-.179
	성향 귀인	.313	.098	6.85**	.416	.170
위축행동	연령 및 습관귀인	.226	.051	10.06**	.941	.226
	애정적 양육행동	.267	.071	7.15**	-.752	-.143

** P<.01

4. 신념의 하위요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궁극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실제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신념체계와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공격행동 및 위축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공격행동과 의의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부모중심의 양육목적(.15*), 성향 귀인(.16*), 세력행사전략(.14*), 무반응의 전략(-.18*), 그리고 애정적인 양육행동(-.22**)이었다. 한편 유아의 위축행동과 의의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성향 귀인(.14*), 연령 및 습관 귀인(.23**), 세력행사 전략(.15*)와 외적 지향 전략(.17*), 그리고 애정적인 양육행동(-.17*)이었다. 이를 토대로 다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공격행동에는 애정적 양육행동, 무반응의 사회화 전략, 성향귀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설명력은 약 10%정도에 불과하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자녀의 공격행동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무반응의 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그리고 공격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할수록 유아는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축행동에는 연령 및 습관 귀인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의 위축행동을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할수록, 그리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 위축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아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신념체계들간의 상호관계와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의 하위요인들 중 귀인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자녀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으로, 위축행동에 대해서는 타고난 성향으로 더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은 타고난 것이고 안정적이며 성향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지만, 부정적인 행동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귀인한다는 Goodnow(1988)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위축행동보다 공격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행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축행동도 일시적 일시적·상황적 요인으로 귀인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Hasting & Rubin, 1999; Mills & Rubin, 1990; Rubin & Mills, 1990)과는 공격행동의 측면에서만 일관성을 보였다.

귀인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보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과도 일관성을 보였는데,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위축행동보다 공격행동에 대부분의 정서적 반응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공격행동에는 당황해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위축행동에는 걱정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다른 어떤 유형의 사회적 행동보다 공격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위축행동에 대해서는 실망, 당황, 죄의식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Hasting & Rubin, 1999; Mills & Rubin, 1990; Mills & Rubin, 1992; 구순주와 최보가, 1996)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공격행동에는 분노에 앞서 당황의 반응을, 위축행동에는 걱정의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자녀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머니들이 선택하는 사회화 전략을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문제행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구성하기 전략과 지지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축행동에 비해 공격행동에 세력행사 전략과 심리적 통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격행동에 더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는 선행연구들(Hasting & Rubin, 1999; Rubin & Mills, 1990)과 일치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각 신념의 하위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화 전략에 양육목적, 귀인, 정서적 반응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공격행동에 대한 세력행사 전략은 어머니가 자녀의 공격행동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그 행동을 연령이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할수록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자녀의 위축행동에 대한 세력행사 전략도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와 연령 및 습관 귀인이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자녀의 복종이나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중심의 양육목적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공격행동에 부정적인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그 행동을 연령 및 습관이나 타고난 성향으로 귀인하고, 부모중심의 양육목적을 가질수록, 그리고 자녀의 위축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이를 연령 및 습관으로 귀인하고 부모중심의 양육목적을 가질수록 심리적 통제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Hasting & Grusec, 1998, 자녀의 문제행동을 성향적, 의도적 요인으로 귀인하며(Dishion, 1990; Mills & Rubin, 1990), 그 행동에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수록(Grusec 등, 1982) 더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구성하기 전략은 공격행동에 대해 모든 정서적 반응이 강하고, 공격행동을 연령 및 습관이나 일시적·외적 요인으로 귀인할수록, 그리고 위축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고 그 행동을 연령 및 습관이나 성향으로 귀인하며, 자녀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목적을 가질수록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공격행동에 대한 지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부정적 정서와 걱정의 정서적 반응, 일시적·외적 요인과 연령 및 습관 요인으로의 귀인이 영향을 미치고, 위축행동에서는 부정적 정서와 일시적·외적 요인으로의 귀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강압적인 전략에서나 구성하거나 지지적 전략 모두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알 수 있는데, 부정적 정서는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정서가 어느 한가지의 전략 선택을 가져오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략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외적 지향 전략의 사용에서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주요 예언변인임을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Hasting과 Grusec(1998)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화 과업을 내면화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더 토론에 기초한 추론을 사용하는 반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는 부모는 지지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위축행동에서만 자녀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목적을 가진 부모가 토론에 기초한 추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공격행동에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위축행동에 대해 혼란과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그 행동을 일시적 요인이나 연령 및 습관으로 귀인할수록 외적 지향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하면서도 이를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또한 자녀의 사회화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문제행동을 연령이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행동을 무시하는 무반응의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된 문제행동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략 선택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게 설계된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양육신념의 하위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애정 차원의 양육행동은 양육신념의 하위요인들과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통제차원의 양육행동에서만 양육신념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통제차원의 양육행동은 어

머니들이 자녀의 복종이나 순종을 강조하고, 자녀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를 때 힘을 사용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 비록 약한 정도의 설명력이고, 그나마 애정 차원의 양육행동에서는 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Miller(198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약한 정도로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자녀의 공격행동에 무반응의 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그리고 공격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할수록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의 위축행동을 나이가 어린 탓이거나 학습된 습관으로 귀인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 위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이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의 발생에 그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공격·위축행동의 발생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애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신념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을 성향이나 연령 및 습관으로 귀인할수록 강압적 전략이나 그외 다양한 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표 7>, <표 8> 참조)와 무반응의 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한다는 점(<표 10>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유아기에 나타난 문제행동은 성향이나 습관과 같이 보다 안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유아기에 보이는 문제행동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고, 그 행동에 과잉반응하기 보다는 애정적으로 유아를 대하는 것이 유아기에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야 유아

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유아의 공격 및 위축행동이 모두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므로 실제 행동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유아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들은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체계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생에 약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Miller(1988)의 지적처럼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실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환경을 구성해주고, 장난감이나 책을 구입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 구순주, 최보가(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1.
- 김은지, 박성연(2002).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3), 187-203.
- 김지신, 박성연(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8(1), 125-142.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영(1994). 또래의 위축행동에 대한 아동의 개념 및 정서추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유수옥, 임영심(2001). 그림 이야기책을 통해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 발달 신념과 양육행동.

- 아동학회지, 22(3), 151-165.
- 이양희, 김윤영(2002). 유아용 반사회적 행동평가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3(3), 109-121.
- 전인옥,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천희영(1994).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77-496.
-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Dix, T. H., & Grusec, J. (1983). Parental influence techniques: An attribu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4, 645-652.
- Dix, T. H., Ruble, D. N., & Zambarano, R. J. (1990).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s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usec, J. E., Ruddy, D. & Martini, T. (1997). Parenting cognitions and child outcomes: An overview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In J. E. Grusec & L. Kuczynski(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pp. 259-282). NY : Wiley.
- Harwood, R. L., Schoelmerich, A., Schulze, P.A. & Gonzales, Z. (1999) 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 a study of middle-class Anglo and Puerto Rican mother-infant pairs in four everyday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0(4), 1005-1016.
- Hastings, P. D., & Grusec, J. E. (1998). Parenting goals as organizers of responses to parent-child disagre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65-479.
- Hastings, P. D. & Rubin, K.H. (1999) Predicting mothers' beliefs about preschool-aged children's social behavior : evidence for maternal attitudes moderating child effects. *Child Development*, 70(3), 722-741.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ills, R.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Mills, R. S. L & Rubin, K. H.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beliefs about children's social behaviors. *Merrill-Palmer Quarterly*, 38(4), 494-512.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ubin, K. H., & Mills, R. S. L.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Siegel, I. E. (1985). A conception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egel(Ed.), *Parental belief system*(pp. 345-371). Hillsdale, NJ : Erlbaum.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2003년 1월 6일 접수, 2003년 3월 21일 채택)